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		학 번	
학과/전공	간호학과	파견대학	Czech University of Life Sciences Prague
파견기간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체코 프라하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곁들여 작성하고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44@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교환학생 보고서_파견대학명_학생명_학번_파견학기”로 하여 송부
※마감일: 2025. 12. 19. 14:00 KST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본교에 **영문 성적증명서, 어학성적,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어학성적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미리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비교적 갑작스럽게 교환학생 지원을 결정하게 되어, 지원 약 두 달 전부터 어학성적을 만들느라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역시 어학성적 준비였습니다. 특히 토플의 경우 시험 비용도 부담되고, 성적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서류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파견 목적을 형식적으로 쓰기보다는 ‘왜 내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지’, ‘왜 그 나라여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국가와 학교는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봐도,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경험담은 참고하되, 교환학생의 주된 목적이 **언어 교류인지, 여행인지, 전공 학습인지**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국가와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 사람으로서 참고하면 좋다고 느낀 점은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비교적 활발히 운영하고, 관련 정보가 많은 파견교, 그리고 도심지와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활과 적응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교류센터입니다.

본 메일은 2025-2학기 파견 교환 프로그램-1지망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메일입니다.
파견을 희망할 경우, **2025년 3월 28일 오후 1시까지 (1), (2), (3) 내용을 모두 작성 및 준비해서 본 메일에 회신하세요.** <기한 내 미 회신할 경우, 노미네이션 누락 등 불이익 발생될 수 있음>
(1) "파견 희망합니다." 문구
(2)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
(3)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이미지 or pdf 파일 모두 가능함)

[추가 안내]
(1) 여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을 때는 (1), (2) 내용 + (3) 생년월일, 영문 이름, 여권 발급 예정 일자 작성해서 회신하도록 하세요.
(2) 담당자 지시 불이행 또는 교류대학에서 입학 거부 등을 했을 경우 교환학생 파견 취소될 수 있는 점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3) 메일 회신 시 '인사말 및 본인 신원 (이름, 학번 등)' 작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비자 및 항공 (0.5~1장)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체코 교환학생 비자는 **파견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직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코는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국가라, 다른 준비보다도 비자만큼은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출국 일주일 전까지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코는 비자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비자 출국이 가능하지만, 이후 현지에서 우편으로 여권을 주고받아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국 전 비자를 수령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비자 인터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 6월 13일: 비자 인터뷰 신청
- 7월 10일: 비자 인터뷰 진행
- 9월 9일: 비자 수령

이렇게 비자 신청부터 수령까지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저는 한국인 직원분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방문 목적이나 예상 체류 기간 등 간단한 질문에 대해 영어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내문에 따라 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해 가시면, 비자 취득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입학허가서를 받는 즉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코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 비자는 가장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저는 파견교에서 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총 4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파견교에는 제 주전공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파견교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코생명과학대학교 내에서 경영학과에 소속된 학생 수가 가장 많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고, 영어가 모국어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시 주전공 수강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타전공 과목도 수강이 가능하며, 저는 경영학 3과목과 엔지니어링 1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의외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Food Engineering** 과목이었습니다. 음식이 원재료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배우는 수업으로, 비전공자도 충분히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체코 교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분이셨고, 학기 중 교수님 차를 타고 학교 내 양조장과 외부 설탕공장, 빵 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며 식품-공정 관련 소양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험은 없었지만 15장 분량의 보고서와 영어 발표가 요구되어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배운 수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나머지 세 과목은 모두 **블록 수업(block course)**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과목별로 하루 약 5시간씩,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수업과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체력적으로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수업이 끝난 후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교환학생을 오신 분들께는 매우 매력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Management Skills 과목은 포르투갈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비전공생이 듣기에도 무리 없는 난이도였으며, 팀 프로젝트 1회와 온라인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플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과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Management Theory 과목은 미국인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라면, 개인적으로 미국인 교수님 수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외국 대학의 토론식 수업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평가 방식은 온라인 프리테스트 1회, 파이널 시험 1회, 1장 분량의 보고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ong-term Investment and Finance 과목은 개인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파견

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전공생인 제 룸메이트도 어려워했던 과목이었을 만큼 전공 지식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투자에 대한 시야를 넓혀보고자 선택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소 다른 수업이었습니다. 시험 준비 과정까지 고려해보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수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솔직한 생각이 듭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이론과 공식을 설명한 뒤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각자 풀이 시간을 가진 후 넘어가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다소 루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업은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을 갖추고 있다면 기본적인 수강 자격은 이미 충족된 상태**이니, 수업 난이도에 대해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지에 와서 느낀 점은, 시험을 위한 영어 실력보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실전 영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 영어 듣기를 많이 해보고, 기본적인 회화 연습을 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든 다 헤쳐 나가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만 챙겨 오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기숙사는 크게 외부 기숙사와 학교 내부 기숙사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학기마다 배정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2025년 2학기에는 파견교에 온 모든 한국 학생이 우선적으로 학교 내부 기숙사인 JIH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West 기숙사로 변경** 요청을 하여 West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두 기숙사를 간단히 비교해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West 기숙사의 장점**입니다.

West는 **공용 주방과 전자레인지, 오븐**이 갖춰져 있어 요리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반면 JIH는 방 안에 작은 열선 1구만 있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려면 데스크에서 열쇠를 대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West 기숙사 내부에는 편의점이 있어 간단한 간식은 물론 우유, 계란, 심지어 한국 라면까지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JIH의 경우 내부 자판기를 제외하면 마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기숙사 주변 **공원**입니다. 기숙사 바로 뒤에 산책하기 좋은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버스를 타고 약 5분만 나가면 **Vypich**라는 러닝하기에 정말 좋은 큰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est 주변에 멋진 공원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시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주저 없이 West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가장 먼저 가격입니다. West는 JIH에 비해 약 **10~20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이지만, 가격 대비 시설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최근 West 기숙사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같은 금액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바닥이 카펫 재질이라 청소가 번거롭습니다. 나무 바닥인 JIH는 걸레질이 가능하고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인지 West 기숙사 방 안에는 개미가 꽤 많았고, 로비에서 개미 퇴치약을 나눠줄 정도로 오래된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결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입니다.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약 **50분 정도가 걸리고 환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 1회 수업이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수업이 잦은 분들께는 내부 기숙사가 훨씬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내부 기숙사인 JIH는 학교 안에 **Menza(학생식당)**, 운동장, 헬스장,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JIH 기숙사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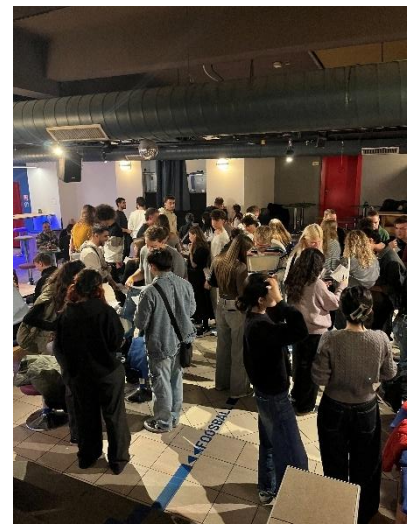
체코 생명과학대학교(CZU)가 교환 파견교로서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 주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열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만 한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반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학기 초반에 진행된 **Human Bingo Game**은 파견교에 온 교환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빙고 게임지를 받아 각국 친구들과 가벼운 질문을 주고받으며 빙고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처음 안면을 트기에 완벽한 프로그램이라 개인적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Campus Tour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교 지리를 익히는 활동이었습니다. CZU는 양조장, 미니 동물원, 온실 등을 보유한 규모 있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학교 투어도 할 겸, 캠퍼스 구조를 익히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Hike & Culture 프로그램은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명소로 이동해 다 함께 하이킹을 하는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하이킹을 좋아하기도 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이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 아름다



운 경관을 함께 보며 친해지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nternational Dinner는 각 국가별로 대표 음식을 준비해 와 간단히 소개하고 나눠 먹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준비해 갔고, 각국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Laser Tag Game, Prague Castle Tour, City Tour, Ice Hockey Game, Beer Pong Night, Yoga Class, Pumpkin Carving**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기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체코 문화는 물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CZU는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체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 학기만 머물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들 외에, **개인적으로 특히 좋았던 장소들**을 몇 군데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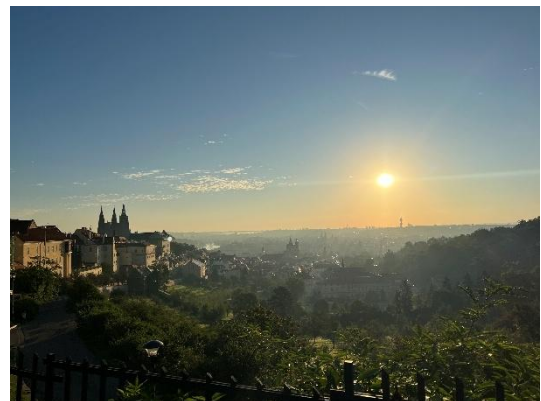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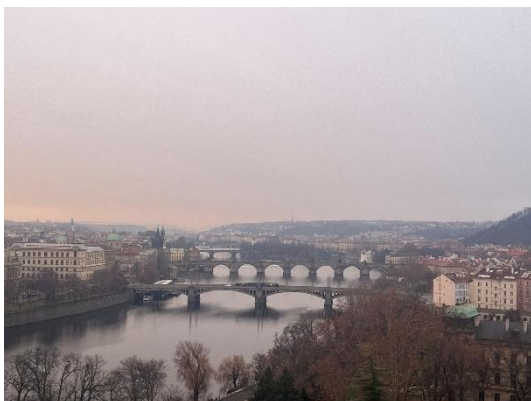
먼저 **로컬 마켓**입니다.

Farmers' Saturday Market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열리는 시장으로, 꽃과 빵, 신선한 채소들로 가득한 현지 마켓입니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로 붐비는 분위기라 체코의 일상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켓에서 빵 하나 포장해 카를교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일출 스팟**입니다.

Vyhlička na Letné 는 카를교를 중심으로 프라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Our Lady of Exile는 날씨 좋은 날, 눈이 유독 일찍 떠지는 아침에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프라하 성과 함께 체코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포인트로, 조용한 아침 시간에 특히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Our Lady of Exile 바로 옆에 위치한 **Strahov Monastery Brewery**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체코 내에서 가성비 좋고 맛있는 폭립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식사 장소로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음식점으로는 **No.1 Malatang**을 추천합니다. 프라하에서 마라탕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마라탕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가끔 뜨끈하고 개운한 국물이 생각날 때 친구들과 종종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카페 추천**입니다.

Liberica Café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오래된 카페로, 케이크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Kavárna Stará škola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로 아늑한 분위기의 진짜 로컬 카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rtic Bakehouse는 체인점이지만 달달한 빵 종류는 대부분 실패 없이 맛있어 간단히 들르기 좋았습니다.

프라하는 도시 곳곳에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공원들을 소개합니다.

Park Ladronka는 West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러닝할 공원을 찾고 계신다면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Obora Hvězda 역시 West 기숙사 근처에 위치한 공원으로, 넓은 잔디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에는 르네상스 시대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Královská obora Stromovka는 규모도 크고 풍경도 아름다워, 날씨 좋은 날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růhonice Park는 유네스코 지정 공원으로, 시내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지만 방문 당일 웨딩 화보를 촬영하는 커플을 볼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근교 여행지입니다.

Karlovy Vary와 **Český Krumlov**는 프라하에서 약 1~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꼭 방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Karlovy Vary는 온천 마을로 유명한 곳으로, 여유가 된다면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온천이나 사우나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기념품 컵을 하나 구매해 거리 곳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를 직접 마셔보는 경험도 추천드립니다.

Český Krumlov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로, 개인적으로는 체코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마을이었습니다.



5. 홍보 (0.5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별도의 공식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수업과 기숙사 생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한림대학교와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한림대학교가 위치한 춘천이라는 도시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이 가까운 도시라는 점, 호수와 산이 가까워 생활 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에서도 교환학생들을 위해 **필드트립이나 버디 프로그램과 같은 교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교환학생들이 비교적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지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보였던 부분은 **한국 문화와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 학식 문화, 배달 문화, 그리고 떡볶이, 김치, 삼겹살과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림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국제 학생 행사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러한 주제로 소통하며,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비교적 친근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홍보 활동은 아니었지만, 일상 속 교류를 통해 한림대학교와 한국의 교환학생 생활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한 학기는 제게 큰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전공이 인정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성취는 크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생각들과 기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싶은지, 반복되는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환학생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비했던 시간, 파견 후에는 낯선 도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며 홀로서기를 연습했던 모든 과정들이 돌아보니 저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간호사로서 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통해 외국 생활이 저와 잘 맞는지 미리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졌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해내는 제 안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외국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이든 참여하려 노력했고, 항상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변해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코 마라톤에 출전해보기도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근교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프랑스 친구 집에 초대받아 그들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체코의 아름다운 공원들을 산책하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말 그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순간들이었고, 돌아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려 해도 오히려 좋은 기억들이 먼저 떠오를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언어의 한계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심이 통하면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도 충분히 친구를 사귄 수 있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표현하지 못할 때 느낀 답답함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은 곧 또 다른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학 성적을 위해 영어를 공부했다면, 이곳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어 드라마를 보고, 이동 시간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영어에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는 하루를 미리 그려보며 제가 할 말과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영어로 바꿔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었고, 외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